



메타세쿼이아길에서 가을을 찾다

담양군, 오늘 걷기대회·26~27일 가로수축제

아름다운 길로 유명한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의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담양군은 15일부터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26~27일 가로수축제에 이르기까지 가을을 담은 메타세쿼이아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15일 담양군 보건소가 주관하는 '메타세쿼이아 건강걷기 대회'가 메타세쿼이아 길과 관방제림을 오가는 3km(왕복 6km)의 구간에서 '건강 실천을 위해 한 걸음 더'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메타세쿼이아 길은 지난 2002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와 2006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 길'에 대상에 각각 선정되며 그 명성을 얻은 뒤 세계적 다른 매력으로 관광

광객을 사로잡고 있다. 또 각종 드라마와 영화, 다수의 CF촬영 장소로 알려져 평일 하루 3000여 명, 주말과 성수기에 1일 1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 내에는 혈압측정과 혈당검사 등 기초검진 상담과, 체성분을 통한 기초체력 측정, 금연·운동·절주·구강보건에 대한 전시관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생태 숲 메타세쿼이아'를 주제로 '제3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축제'가 (사)생태도시 담양 21협의회, 가로수사랑국민연대, (사)담양예술인 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특히 해바라기, K2, 박강성 등 유명가수가 출연해 깊어가

는 가을의 정취와 추억을 더해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군민뿐만 아니라, 죽녹원 등 담양의 관광지를 찾아온 관광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며 "담양을 방문해 좋은 추억도 만들고 몸과 마음을 맑게 힐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당부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나주 미래산단 규모 축소 개발

300만㎡서 180만㎡로... 전자부품·컴퓨터 등 집중 육성

전남도는 14일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지정 시 300만㎡로 계획돼 과다한 사업 규모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보상 및 후속 개발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5년간 사업이 표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민간투자 관련 불합리한 이자율과 수수료를 개선해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고 타당성 재조

사를 통해 사업 구역을 대폭 축소(180만㎡)키로 하고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중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행정절차 완료 후 연내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미래산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산단 조성사업 완료 시 생산 유발효과는 3840억원, 직·간접적 고용 유발효과는 1만1600명으로 중부권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주배-영주사과 혼합상품' 팜투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나주배와 영주사과 혼합 상품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는 나주시조합공공사 영업인 주관으로 농업협·농협 관계자와 소비자 회원 26명 초청 팜투어가 나주 일대에서 열렸다. 팜투어 참가자들은 ▲배 수확·선별 체험 ▲배 과수원 방문 ▲나주배-영주사과 혼합세트 제작과정 ▲천연염색 체험 등을 살펴봤다. 특히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배와 사과 가운데 나주배와 영주사과를 골라 혼합세트를 만드는 이색 프로그램에서 참가자 전원이 나주배의 우수성을 체험했다는 후문이다. 농업협·농협 임근희 MD는 "행정기관,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



자가 함께 하는 이런 행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배와 영주사과 혼합 상품은 지난 추석에 전국 이마트 매장 및 농협유통 등을 통해 3만5858세트가 판매돼 21억50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나주시와 영주시는 배와 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수도권 대형 하나로 클럽 5개 매장에서 오는 31일부터 11월6일까지 7일간 직판행사를 갖는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전북

남원서도 인삼 재배 소득 '짹짹'

하우스 해가림 방식 고령지서 6년근 재배 KT&G 전량 계약 출하... 안정적 판로 확보

남원지역 농민들이 인삼 재배로 소득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인삼 재배지가 점차 복잡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 농민들은 하우스 해가림 시설을 통해 지리산 고령지에서 6년근 홍삼을 재배하다. 이 홍삼은 고품질로 KT&G에 전량 계약 출하되면서 안정적인 판로 덕분에 재배 면적 및 농가 수도 증가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남원시는 14일 "지난 9일 운봉읍 덕산리 운삼성 농장에서 하우스 해가림으로 재배한 6년근 홍삼 수확 및 현 장평가회를 인삼 재배 농업인, 유관

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하우스 해가림 인삼 우수성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하우스 해가림 인삼은 일반 해가림 재배에 비해 병해충과 자연기상 등 조건이 좋아 6년근 홍삼 수량이 일반 해가림의 경우에 비해 36% 증가됐고, 병충해가 적어 노동력의 70% 이상이 절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해충 방제를 연간 2~4차례로 줄여 안전성이 높은 친환경 인삼을 생산할 수 있어 인삼 재배 농민들

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들 하우스 해가림 시설 농가들은 KT&G와 전량 계약 출하해 6년 홍삼을 전량 계약 출하하고 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하우스 해가림 인삼 재배가 초기 시설비 투자 비용이 들지만, 수확성이 높고 품질 향상으로 소득이 높아 운봉 등 고령지 기상과 적지를 선택해 특화 단지로 육성해야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인삼 주산지에 사업비 2억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 친환경 인삼 하우스 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

아빠 손잡고 산책하고 고구마 수확하고...

전주시 '1박2일 힐링캠프'

전주시는 14일 "지난 12일부터 1박2일 동안 완주군 경천면 농촌사랑학교에서 '아빠와 함께 하는 1박2일 힐링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첫째 날에는 가족티 만들기, 아빠와 함께 보물찾기, 자연물로 만든 행복한 우리집, 아빠와 함께하는 데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 아빠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은 아빠 손잡고 숲 속 산책하기와 고구마 수확체험 등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주시 여성가족과 이숙이 과장은 "아빠와 함께 하는 1박2일 힐링 캠프"행사가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 참여를 적극 유도해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대 새만금캠퍼스 개교

기업연구관 등 조성 제2 도약 선언

국립 군산대학교는 14일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캠퍼스관에서 새만금캠퍼스 개교식을 하고 제2의 도약을 선포했다. 군산대는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로부터 무상관리 조건으로 전량받은 4만㎡의 터에 캠퍼스를 조성했다. 캠퍼스에는 연면적 9766㎡에 지상 5층 건물인 산업단지 캠퍼스관이 지난달 준공된 것을 비롯, 기업연구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관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군산대는 현재 기계자동차공학부,

제어로봇공학과, 조선공학과 3~4학년도를 이곳으로 이전시켜 353명의 학생에게 현장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다. 개교식에는 권오신 새만금캠퍼스 본부장, 고승기 군산대 산학융합지구 사업단장 등 주요 보직자와 정항근 전북대 부총장, 박성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강승구 군산 부시장, 강태창 군산시의회 의장, 원창희 군산대 총동문회 부회장, 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농악 경연대회

농악단원 등 1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명나게 치러졌다. 14개 읍면 15개 농악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고수면 '미담바우 농악단'이 대상을, 무장면 '무장읍성 놀이마당 농악단'이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고창군 제공>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고창농악의 다양한 굿판을 볼 수 있는 '제12회 고창농악 경연대회'가 지난 12일 고창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군민과 관광객, 농악단원 등 1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명나게 치러졌다. 14개 읍면 15개 농악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고수면 '미담바우 농악단'이 대상을, 무장면 '무장읍성 놀이마당 농악단'이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고창군 제공>

단신

군산해경, 바다낚시 음주 운항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14일 "가을 바다낚시철을 맞아 11월11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12일 군산외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상태로 36t급 예인선을 몰던 김모(59)씨를 검거하는 등 올해 8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한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5t 미만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리산 달궁 자동차야영장 사전예약제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14일 "달궁 자동차야영장과 뱀사골야영장에 대해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궁 자동차야영장은 350동 중 전기사용이 가능한 57동, 뱀사골야영장은 전체 21동이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지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

(jiri.knps.or.kr)를 통해 가능하며,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야영객이 크게 늘면서 낚시와 관계없이 사계절 야영을 즐기는 추세인데다 선호하는 자리를 예약하려는 야영객이 많아지면서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게 됐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

서울경마공원서 순창장류축제기념 경주대회

서울경마공원에서 순창장류축제 기념 경주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경마장에서 열리는 하루평균 14경기 중 1경기가 스폰서로 진행된 장류축제 기념경마는 순창군 후원으로 13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마사회

(KRA) 서울경마공원에서 장류축제 기념 경주대회를 통해 수도권 도시민의 귀농귀촌실적을 높이고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서울경마공원 입장 매표소 앞에는 12일부터 1박 2일간 순창 특산물 직판관 및 장류축제관, 귀농귀촌 홍보관 등이 운영되기도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효과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14일 "올해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조달능력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 5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억4000여

만원을 특례보증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 및 영업 조건을 만족하는 저신용등급(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